



제 22 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 및 제 7 회 중국제 1 자동차흥기카니발 개막

— 황강 개막 선포 호옥정 축하



▲ 7월 12일, 제 22 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 및 제 7 회 중국제 1 자동차흥기카니발 개막식에서 성당위 서기 황강,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함께 전시관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제 1 자동차흥기전시구역에서 기술혁신 성과를 상세히 료해하고 신형 차량 모델을 참관했다.

12일, 제 22 회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 및 제 7 회 중국제 1 자동차흥기카니발 개막식이 장춘에서 열렸다. 성당위 서기 황강이 참석해 개막을 선포하고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축하를 했다.

이번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는 중국제 1 자동차흥기카니발과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총 4 개의 완성차전시관, 3 개의 특별전시구역, 2 개의 체험구역 및 1 개의 야외전시구역으로 구성되었다. 박람회에는 글로벌 주류 자동차 기업들과 신형 세력 유명 브랜드들이 참여했으며 흥기 '천공(天工)' 계열을 비롯한 다양한 신형 차량이 공개되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황강, 호옥정은 함께 전시관을 돌아보며 구매 문제를 상담하러 온 로씨야 중개상인들과 친절하게 교류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80 년전 중로 양국 인민들은 세계반파쑸전쟁에서 어깨 견고 싸웠고 상호 지원했다.

새로운 력사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로씨야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심화하고 광활한 자동차 시장을 함께 개척하길 바라고 있다. 황강, 호옥정은 제 1 자동차흥기와 제 1 자동차팬티엄(奔腾) 전시구역을 찾아 기술혁신 성과에 대해 상세히 료해하고 흥미롭게 신형 차량을 참관했으며 길림성 '15.5' 계획과의 깊은 점목을 강화하고 함께 자동차산업군집을 육성하면서 길림의 전면 진흥에 기여하기를 중국제 1 자동차에 희망했다. 제 1 자동차폭스바겐과 제 1 자동차아우디 전시구역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길림성과 광호한 협력 토대를 가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고품질의 상징이다. 독일 폭스바겐이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길림에 집중하고 시장에 더 가까운 인재들이 결책을 하도록 하여 쌍방의 협력이 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비아디(比

亚迪), 홍몽지행(鸿蒙智行), 리상(理想) 등 전시구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다양한 신에너지 자동차들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는 발전 추세가 강하다. 우리는 더 많은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들이 길림에 와서 투자하고 사업을 흥행시키는 것을 환영한다. 기업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촉진하며 '내부 경쟁식' 경쟁을 피하고 공동으로 산업 발전을 추진하여 자동차 시장을 번영시켜야 한다. 무수사식(无辐式) 수소에너지 이륜차는 조형이 전위적이고 과학기술 감각이 충만했다. 황강은 수소에너지 응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면서 소비 흐름을 더욱 잘 이끌도록 기업을 격려했다. 황강은 또 현장 보안인원들을 위문하고 그들에게 예방을 강화하고 최저선을 지키며 전시회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신신당부했다.

호옥정은 축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장춘자동차박람회 및 흥기카니발은 '신질로 미래를 선도하자'를 주제로 118 개 유명 자동차기업과 각계 손님들을 초청하여 흥기의 새로운 풍채를 함께 감상하고 협력의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며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게 된다. 이는 반드시 중국 자동차공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길림 진흥의 새로운 돌파, 국제자동차도시의 건설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이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길림은 중국제 1 자동차와 함께 민족 자동차 브랜드 진흥의 기치를 떠메고 전동화, 네트워크 련결화(网联化), 지능화를 방향으로 세계급 자동차 선진 제조업 군집을 건설할 것이다. 중국제 1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관련 핵심기술을 공략 돌파하고 제품의 경쟁력, 브랜드 영향력을 증강하여 '용감하게 조류의 선두에 서고 영원히 1 위를 다투는' 중국제 1 자동차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야 한다. 국내의 자동차 및 부품 기업, 과학연구기구와 전문인사들이 길림 진흥의 기회를 공유하고 량질의 대상을 길림에 투자하며 선진기술을 길림에 인입하여 길림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고 새로운 업적을 창조하도록 돕기를 바라며 광범한 자동차 소비자들이 민족 브랜드가 국문을 나서 세계로 나아가고 전세계에서 명성을 얻도록 중국제 1 자동차를 지지하기를 바란다.

개막식에서는 장춘국제자동차박람회 선전 영상을 방영했다. 중국제 1 자동차 당위 서기이며 리사장인 구현동, 중국기계공업련합회 당위 서기이며 리사회 회장인 서념사, 중국자동차류협회 명예회장 심진군이 축하를 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장춘시당위 서기인 장은해가 개막식을 사회했다. 성 및 장춘시 지도자들인 리위, 김육휘, 왕지후, 왕자련, 고지국, 중국제 1 자동차 총경리 류역공, 성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 국가 관련 업종협회화회 책임 동지, 중국 주재 일본사절 및 로씨야, 로므니아, 라오스 등 각국 상협회 대표, 로씨야 자동차 중개상 및 전시회 참가 기업 대표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 김명준기자

상반기 전동자전거 보상교환판매량 800 만대 이상

7월, 상무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전동자전거 보상교환판매는 관련 업종의 생산과 판매를 모두 왕성하게 이끌었다. 1월부터 6월까지 전동자전거의 보상교환판매량은 전월 대비(环比) 월평균 113.5% 성장했다. 상위 10 대 브랜드 전동자전거의 총생산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6% 성장했다.

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회수 및 교환한 전동자전거는 각각 846 만 5,000 대에 달한다.

해민 효과도 더욱 뚜렷해졌다. 1월부터 6월까지 31 개 성(구, 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탄의 전동자전거 보상교환판매총액은 247 억 7,000 만원에 달하고 840 만 2,000 명의 소비자가 전동자전거 보상교환판매 정책의 보조금을 받았다.

산업 촉진 작용이 뚜렷해졌다. 총 8 만 2,000 개의 판매점이 전동자전거 보상교환판매에 참가하고 그중 대부분은 소기업과 령세기업 및 개체상인으로 매 판매점의 평균 판매액을 30.2 만원 증가시켰다.

안전 지향이 충분히 발휘되었다. 2024년 9월 전동자전거에 대한 보상교환판매가 시작되면서 보상교환판매를 통해 수거 및 폐기한 중고 전동자전거는 약 985 만대에 달한다. 보상교환으로 판매되는 새 전동자전거는 모두 현행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제품합격증과 CCC 증서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을 더욱 안심시켰다. / 인민넷

연변, 여름 소비 달구는 '할인 폭풍' 개시



11 일 개최된 '연변 2025년 여름 소비 시즌'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여름 시즌을 맞아 '도시관광 + 새로운 연변을 즐기자'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는 음식업,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 6개 요소를 둘러싸고 상무, 문화, 관광, 체육 4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연변주상무국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활동 기간 200 여차례의 판촉 행사를 조직할 예정이며 200 여가지 우대정책을 출시하게 되는데 2,000 만원의 소비쿠폰, 200 만원의 메이탄 음식업 소비쿠폰을 방출한다. 동시에 교통은행 온라인 플랫폼에서 200 만원의 소비권을 방출한다. '연변팀 흥장 경기 입장권으로 문화관광 항목 할인, 문화관광 티켓으로 소비쿠폰 교환' 기제를 건립하고 중국축구 갑급리그, 마라톤대회 등 경기를 통해 '소비 시 경기 티켓 지급', '유람 시 소비 혜택 제공', '경기 관람 시 선물 증정' 등 판촉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일부 판촉 행사는 흥장 경기 입장권에도 비행기표, 고속열차표, 고속도로 통행료금 명수

증을 휴대해도 해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졸업 시즌을 맞아 전자제품을 할인하고 야시장, 슈퍼마켓 및 가전제품, 인테리어박람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다양한 제품과 혜택, 이벤트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텔레비전, 1,000 대의 지문락도어(指纹锁)를 추첨 경품으로 마련했다. 이 밖에 연길백화 CGV, 만달영화관 그리고 상권내 음식점 기업과 협력해 '영화 + 미식' 소비를 이끌게 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꽃차 퍼레이드, 전원 캠핑, 버드와이저맥주미식 축제, 동북아미식문화전시, 조선족 백종절, 현장공연 등 특색 문화관광 행사를 펼치고 개학 시즌이 되면 연변대학과 협력해 전국의 신입생들에게 풍경구 입장권을 제공한다. 동시에 학생들을 상대로 70 개의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데 전국의 초중 및 고졸 졸업생들은 수험표를 휴대하면 20 개 풍경구를 무료로 입장하거나 반값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변주체육국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연변팀 흥장 경기 입장권 휴대 시 소비자들은 풍경구, 류숙, 음식업, 소매점 등 분야에서 '축구팬 특별 할인 혜택'을 향수할 수 있다. 연길진달래면, 룡정운리조트호텔(龙井度假区酒店), 농기계교의주유소에서 소비 시 흥장 경기 입장권을 증정받을 수 있으며 초중 및 고졸 졸업생들은 수험표로 연변팀 흥장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 글 김영화기자 / 사진 박경남특약기자

길림성,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분류' 일상화

시민들의 쓰레기 분류 의식을 제고하고 녹색, 저탄소, 환경보호의 생활 방식을 창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길림성에서는 '쓰레기 분류, 환경보호'를 주제로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총 600 여회의 관련 활동에 2만여명이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장춘시, 통화시, 매하구시는 선전책자를 배포하고 선전화보를 붙이며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형식으로 쓰레기 분류 표준과 분류 투입 요구를 보급하고 '플라스틱 감소', '접시 비우기' 등 저탄소 생활방식을 창도하였으며 위챗계정, 영상 플랫폼 등 뉴미디어를 리용하여 쓰레기 분류에 관한 지식들을 보급했다.

송원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류 자원봉사총대를 설립하여 고중입시, 대학입시 기간에 애심지원활동을 조직했다. 3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활동에는 연인수로 200 명이 참가

했고 선전자료 2,000 부를 배포했으며 선전과 인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류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녹색 생활방식을 창도했다.

사평시, 료원시, 백산시, 백성시, 장백산관리위원회 등지는 사회구역 자원봉사자, 부동산관리인원들을 조직해 사회구역, 기업, 기관, 상가를 직접 찾아가 쓰레기 분류에 대해 선전하게 했다. 동시에 사회구역에 쓰레기 분류 선전소를 설립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지식을 보급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에 대해 분류 투입 감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비규범적인 투입 행위를 바로 잡아주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쓰레기 분류 투입 정확도가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쓰레기통 주변의 환경도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

공주령시는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쓰레기의 전단계 수거에서 중간 단계 운송 및 마지

막 단계 처리까지의 전반 과정을 직관적으로 시연하여 쓰레기를 왜 분류해야 하는지, 분류후 어떻게 수거, 운송하고 최종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관련 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하였으며 쓰레기 분류의 중요한 의의와 과학적 방법을 깊이 인식하게 했다.

이외, 길림성 교육계통에서는 쓰레기 분류 선전교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학생들의 쓰레기 분류 지식 양성에 중시를 돌렸다. 그중 장춘시 관성구 육홍소학교는 전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937 명의 소년대원을 대표로 하는 '쓰레기 분류 사자(使者)' 활동을 조직해 '어린 주인공'의 역할을 뚜렷하게 하고 학교의 쓰레기 분류로 하여금 모두가 알고 매일 하며 달마다 보고하는 녹색 발전의 사슬을 형성하게 했다.

길림시제 1 중학교는 전통문화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지혜를 깊이 발굴하였다. 주제반회를 리용하여 송나라

'가두사(街道司)' 환경위생제도를 환원하고 '고금분류대조표(古今分类对照表)'를 설계했다. 이런 전통문화로 현대 환경보호 교육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은 '설교식' 강의를 타파하고 쓰레기 분류에 '뿌리가 있게' 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증강시켰으며 학생들의 환경보호 의식과 쓰레기 분류 능력을 향상시켰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주제선전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쓰레기 분류에 대한 군중들의 리해를 증강시켰으며 자각적으로 환경위생을 지키려는 의식을 현저하게 향상시켰다. 금후, 길림성은 쓰레기 분류 주제선전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추진하고 아름다운 길림을 건설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 길림일보



연길의 여름밤을 랑만으로 ... 꽃차 퍼레이드

11 일 저녁 8시, 연길공공왕국이 알심 들어 준비한 4 대의 거대한 테마 꽃차(공룡, 학, 고래, 핵심테마 모양의 꽃차)가 연길시민인민공원 등에서 출발해 공원으로 따라 인파로 북적이는 연길의 왕홍벽을 지나 최종 목적지인 연길시소년궁에 도착했다. 이번 꽃차 퍼레이드는 연변 피서레저 시즌 계열 활동중 하나로 연길의 독특한 공룡 테마 문화와 다채로운 민속풍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시민, 관광객들에게 멋진 여름밤을 선사했다. / 박경남특약기자